

ASAN REPORT

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여론연구프로그램

2017년 12월



Asan Report

**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여론연구프로그램

2017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 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 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2015,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김길동

김길동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복수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 동아시아 정치이다.

목차

들어가며	07
I. 한미 정상회담	08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08
2. 호감도 추이	11
II.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14
1. 한미관계 전망	14
2. 한국의 협력상대	17
III.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19
1. 북핵 문제 협력상대	19
2. 한미일 안보협력	20
3. 한중협력 가능성	22
나가며	24
부록	26

그림

[그림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09
[그림 2] 주변국 호감도	12
[그림 3]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14
[그림 4] 한미관계 전망	15
[그림 5] 북핵 문제 해결 중요 국가	20
[그림 6]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21
[그림 7] 2017년 11월 한중 정상회담 평가	23

표

[표 1]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평가	10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 정상회담 평가	11
[표 3]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관계 전망	16
[표 4]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	17
[표 5] 주변국 및 주변국 호감도별 한국의 협력상대	18
[표 6]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22

들어가며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State Visit)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올해로만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가졌다.¹ 한미 양국은 북핵 공동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며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11월 8일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돌발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북한의 정권세습과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평화적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불식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미 전략자산 도입과 무기구매 결정으로 재정부담, 주변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75일만에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연중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으며 강대강 대결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봉합하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맞서기 위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책 유지를 천명하며 미일동맹에 기반해 보통 국가로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월 7~8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북핵 문제 해결 중요 국가 등에 대해서도 물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1월 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12월 중순으로 다가온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점을 짚어봤다.

1.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9월 22일에는 UN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독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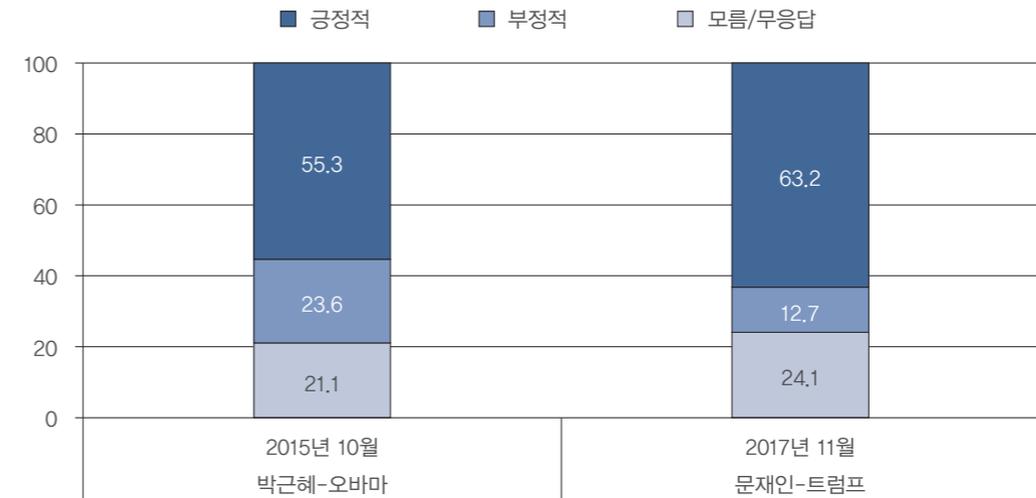
분석 결과,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했다.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2016년 11월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정상회담 후인 올해 11월에는 당시의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으로 바뀌었다. 정상회담 평가, 한미관계 등 외교 전반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와 관련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40대 이하, 진보 성향 응답층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었고,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선택에서는 미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됐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1순위 협력 상대로 꼽혔다. 최근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공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중관계는 10월 말 한중 간 관계복원 협의 결과, 11월 초 개최된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로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선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상외교가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11월 초 트럼프의 방한 등으로 인한 대미(對美) 인식 제고로 부분적으로 검증됐다. 따라서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I. 한미 정상회담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는 긍정,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공조의 견고함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의 안보 불안 비판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미국에 무기 판매,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경제적 이익을 내줬다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던 것과 달리, 한국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수인 63.2%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 평가는 12.7%로 긍정적 평가의 1/5수준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24.1%였다. 회담 전만 해도 북핵 문제 대응, 한국의 3불(不) 입장과 균형외교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미국의 선제공격론 등으로 한국인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림 1] 한미 정상회담 평가² (단위: %)



정상회담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이번 결과도 과거 한미 정상회담 때와 유사했는데, 2015년 10월 박근혜-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담 당시에도 긍정적 평가는 55.3%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적 평가는 23.6%에 불과했다(모름/무응답 21.1%). 정상회담이 사전에 많은 조율을 거치고, 세간의 큰 주목을 받는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럼에도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12.7%로 2015년보다 낮았다는 점은 유의할만한 대목이다.

추가로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었다. 긍정적 평가(n=632)의 이유로는 한미 정상간 신뢰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3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재확인,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 확인이라는 응답이 각각 21.5%, 20.1%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안보 문제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도입 결정, 한미 FTA 개정 등 경제협력 논의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각각 12.4%, 10%에 불과했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n=127)의 이유로는 정상간 보여주기식 친밀감 과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주도라는 응답이 각각 22.7%, 2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되풀이된 북핵 문제 공조, 혼란한 국내 정치상황이라고 한 응답이 각각 19.4%, 17.5%의 순이었다.

2.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5년 10월 19~20일, 2017년 11월 14~16일).

[표 1]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평가³ (단위: %)

		한미 정상회담 평가		사례수
		긍정적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	비호감	53.6	46.4	110
	중립	70.8	29.2	106
	호감	91.7	8.3	541

흥미로운 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다([표 1] 참조).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를 0~4점은 비호감, 5점은 중립, 6~10점은 호감으로 구분해 정상회담 평가를 비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호감층에서 91.7%로 매우 높았고, 비호감층에서는 53.6%로 훨씬 낮았다(중립 70.8%).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비호감층에서 뚜렷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호감층의 46.4%는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도 달랐다([표 2] 참조). 4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40대 74.2%, 30대 68.3%, 20대 64.6%의 순이었다. 50대 이상도 절반 이상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50대 60.5%, 60세 이상 51.8%).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50대에서 20.1%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가장 낮았다(8.7%) 이념성향별로는 긍정적 평가는 진보에서 72.8%, 부정적 평가는 보수에서 20.2%로 그 차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40대 이하,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연령이 높거나, 보수 성향인 응답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7년 11월 14~16일).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494$, $df=2$, $p=.000$). 두 문항에 대한 '모름/무응답' 응답은 결측치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 정상회담 평가⁴ (단위: %)

		2015년		2017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55.3	23.6	63.2	12.7
연령대	20대	46.5	21.1	64.6	8.7
	30대	36.0	38.9	68.3	10.1
	40대	43.4	37.7	74.2	10.0
	50대	72.2	15.0	60.5	20.1
	60세 이상	74.3	7.6	51.8	13.4
이념성향	진보	38.5	43.9	72.8	9.4
	중도	58.7	20.1	60.4	11.7
	보수	64.8	18.0	64.0	20.2

이런 경향은 2015년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나타났었다. 당시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5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50대 이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50대 72.2%, 60세 이상 74.3%). 반면, 40대 이하의 긍정적 평가가 50%가 되지 않았고,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또 당시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보수에서 64.8%로 높았고, 진보는 43.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는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고 회담에 대한 평가는 상대 국가와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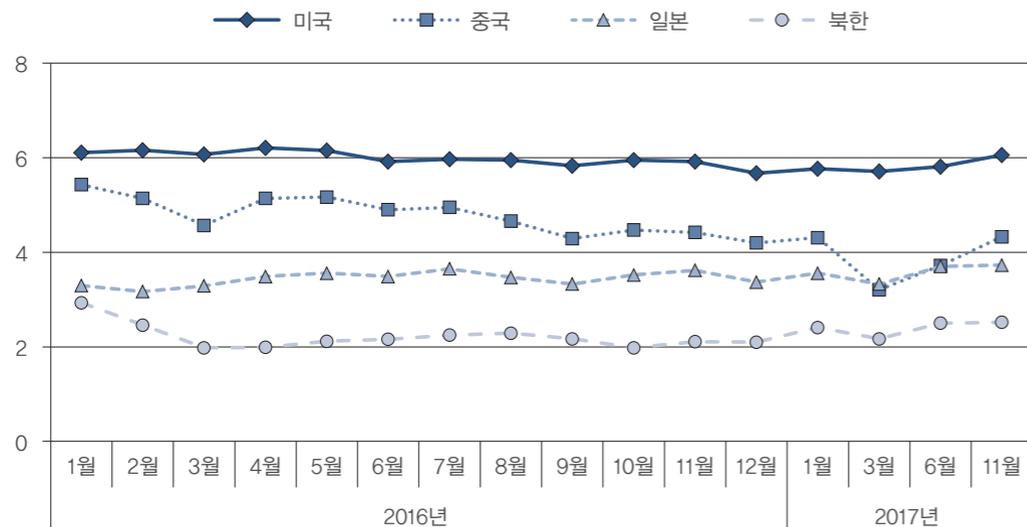
2. 호감도 추이

주변국 호감도

2017년 11월 미국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는 6월 5.81점에서 0.25점 상승해 6.06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국인의 대미 인식을 제고

4.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5년 10월 19~20일, 2017년 11월 14~16일).

[그림 2] 주변국 호감도⁵ (단위: 0~10점)



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줄곧 5점대에 머물렀던 미국 호감도가 2016년 5월(6.15점) 이후 최초로 6점대를 돌파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소폭이지만 이번에 미국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방한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덕분이었다.

중국 호감도 역시 3점대에서 반등하며 11월 4.33점까지 상승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논란으로 대중 감정이 좋지 않았던 2017년 3월과 비교하면 1점 이상 상승한 결과였다. 3월 당시 3.21점까지 하락했던 중국 호감도는 올해 초 수준(1월 4.31점)으로 회복됐다. 6월(3.72점)에 비해서도 0.61점 상승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봉합한 한중관계 복원 합의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나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중국 호감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미국 호감도에 비해, 중국 호감도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폭이 컸다.

일본, 북한 호감도는 11월 각각 3.73점, 2.52점으로 지난 6월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5.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6년 1월~2017년 11월). 2017년부터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의 횟수가 조정되면서 2016년 매달 이뤄지던 조사가 비정기 조사로 바뀌었다.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추이 해석에서 조사 간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 북한 호감도 값의 변화가 5개월 사이(6~11월)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폭은 매우 미미했다. 이는 위안부 협상 타결, 북핵 미사일 개발로 한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리 걸음 상황인 일본, 북한과의 양자관계가 한국인의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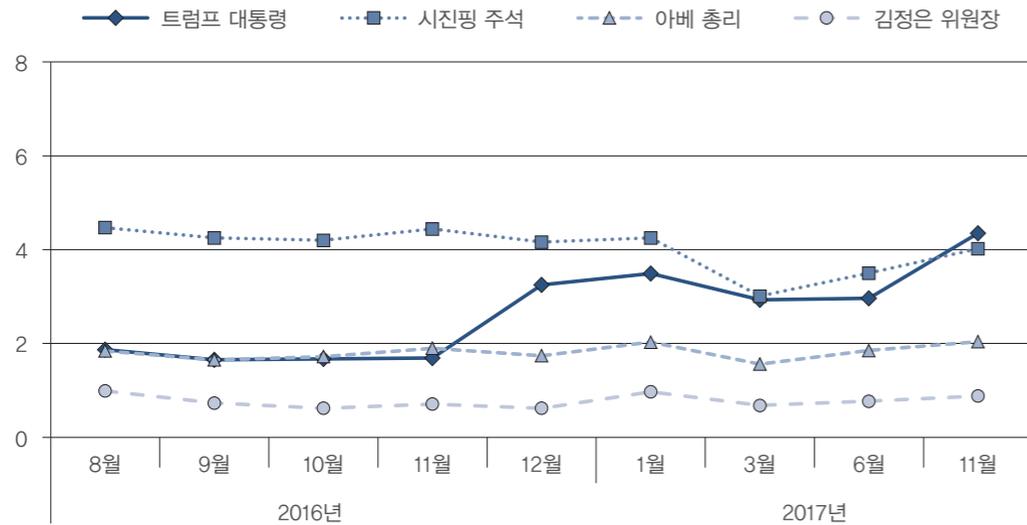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 10점= 매우 호감이 있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11월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4.3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다. 물론, 이 결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교적 점잖은 모습을 보였던 점이 반영됐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호감도는 1점대에 머물며 전임자인 오바마 호감도(평균 6.33점)와 큰 대조를 이뤘다.⁶ 당선 이후인 2016년 12월 3.25점까지 상승한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1월 3.49점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북 강경발언과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의 통상압박으로 2017년 6월 2.96점까지 하락했다. 11월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시진핑 주석 호감도를 추월했다. 6~11월 사이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호감도 상승은 20대(2.89→4.56)에서 1.67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30대 1.45점(2.55→4.00), 40대 1.44점(2.35→3.79), 60세 이상 1.41점(3.70→5.11)의 순이었다.

시진핑 주석 호감도 역시 6월(3.50점) 대비 상승하며 4.02점이 됐다. 이로써 시진핑 호감도는 2017년 1월(4.25점) 이래 처음으로 4점대를 회복했다. 사드 배치 보복 논란으로 한중 갈등이 증폭된 2017년 3월(3.01점)에 비하면 1점 이상 상승한 결과였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변화는 20대, 60세 이상에서 각각 0.77점(2.75→3.52), 0.65점(3.65→4.30)으로 상승폭이 컸다. 다음으로는 50대 0.44점(3.96→4.40), 30대 0.38점(3.28→3.66), 40대 0.37점(3.71→4.08)으로 비슷했다.

아베 총리,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는 일본, 북한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 8월 이후 호감도 변화가 미미했다. 아베 총리 호감도는 최소 1.56점, 최고 2.04점으로 트럼프, 시진핑 호감도와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연중 무력도발을 지속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는 최소 0.62점, 최고 0.99점으로 1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최하위를 유지했다.

6.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7월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오바마 호감도는 평균 6.33점(표준편차 0.206점)이었다.

[그림 3]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⁷ (단위: 0~10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호감도 상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덕분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호감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가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연설에서 ‘로켓맨’ 등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호감도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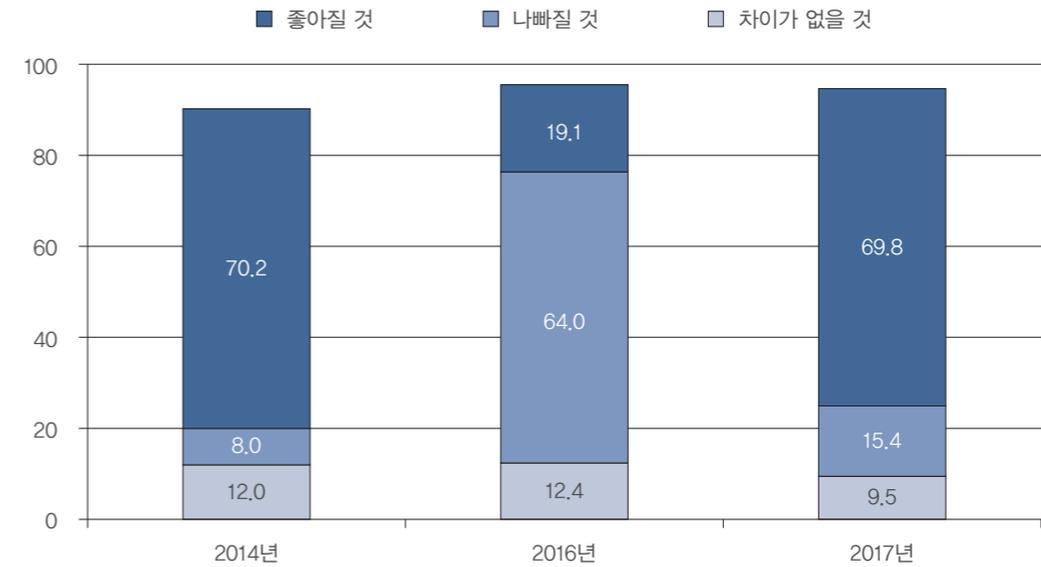
II.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1. 한미관계 전망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만큼 향후 한미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 본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69.8%가 향후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고, 나빠질 것으로

7.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6년 8월~2017년 11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트럼프 후보’ 또는 ‘트럼프 당선인’으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를 조사했다.

[그림 4] 한미관계 전망⁸ (단위: %)



본 비율은 15.4%에 그쳤다.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응답자(n=154) 중 다수는 대북 문제 접근법(37.6%),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제(23.5%) 등을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외에 향후 한미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9.5%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2017년 11월)가 2016년 11월 미(美) 대선 이후에 실시된 조사와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64%의 한국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내다봤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9.1%로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안보 무임승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당시 한국인은 한미관계의 미래에 높은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덕분에 다수의 한국인은 향후 한미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이 요동쳤지만, 1년 사이 한국인의 대미 인식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의 비율은 2014년

8.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4년 3월 7~9일, 2016년 11월 22~24일, 2017년 11월 14~16일).

[표 3]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관계 전망⁹ (단위: %)

		2016년		2017년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전체		19.1	64.0	69.8	15.4
연령대	20대	19.4	68.4	78.1	10.8
	30대	17.8	71.6	78.7	14.1
	40대	14.4	67.1	74.8	12.2
	50대	19.8	62.5	61.2	22.7
	60세 이상	23.4	53.5	60.7	16.2
이념성향	진보	19.2	65.2	79.5	8.7
	중도	15.5	66.3	68.6	15.5
	보수	25.8	61.0	64.8	22.4

조사 때와 비슷했다(좋아질 것 70.2%).

한미관계 전망을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나눠 살펴봤다([표 3] 참조). 모든 연령대와 이념성향에서 비관적 전망에서 낙관적 전망으로의 변화가 발견됐는데, 이는 특히 40대 이하에서 뚜렷했다. 마찬가지로 비관적 전망에서 낙관적 전망으로 가장 많이 바뀐 층은 진보 성향 응답자로 그 차이가 60.3%로 매우 컸다(좋아질 것 19.2%→79.5%). 반면 고령층, 보수 성향 응답자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지지)와 연관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라 한미관계 전망도 달랐는데, 향후 한미관계를 낙관하는 비율은 문재인 대

9. 한미관계 전망 분석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모름/무응답'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지 않았다. 변화폭이 크지 않았고, 여기서 초점은 1년 전 한미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2017년 11월 낙관적 전망으로 전환됐다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표 4]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¹⁰ (단위: %)

		한미관계 전망			사례수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차이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	비호감	46.9	40.7	12.4	145
	중립	63.9	20.3	15.8	158
	호감	82.7	9.7	7.6	630

령 호감층에서 82.7%로 매우 높았던 반면, 비호감층에서는 46.9%로 훨씬 낮았다(중립 63.9%).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 전망은 비호감층 40.7%, 호감층 9.7%로 비호감층에서 높았다(중립 20.3%).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지지)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고,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층 응답자는 정상회담도 부정적으로 봤고, 한미관계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2. 한국의 협력상대

아산정책연구원은 2014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 향후 어느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조사했다.¹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한 문항으로 미중 사이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다. 11월 조사 결과, 2017년 6월 당시와 동일하게 미국 선호 경향이 발견됐다. 2017년 6월, 11월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67.3%, 66.4%로 오차범위 내였다. 중국을 선택한 비율도 6월 22.3%, 11월 23.3%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개월 사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제고됐지만, 전략적 선택에 변화를 줄 만큼은 아니었다.

10.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7년 11월 14~16일).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4.373$, $df=4$, $p=0.000$).

11.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7. 새 출발점에 선 한미관계.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보고서의 24~2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5]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별 한국의 협력상대¹² (단위: %)

		한국의 협력상대		검정값
		미국	중국	
미국 호감도 (n=891)	비호감	48.8	51.2	x ² =65.400 df=2 p=.000
	중립	70.0	30.0	
	호감	83.6	16.4	
트럼프 호감도 (n=883)	비호감	66.3	33.7	x ² =24.423 df=2 p=.000
	중립	75.4	24.6	
	호감	84.0	16.0	
중국 호감도 (n=887)	비호감	81.6	18.4	x ² =20.650 df=2 p=.000
	중립	71.0	29.0	
	호감	64.8	35.2	
시진핑 호감도 (n=875)	비호감	80.7	19.3	x ² =65.400 df=2 p=.000
	중립	66.4	33.6	
	호감	68.5	31.5	

[표 5]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호감을 보인 응답층에서 미국을 한국의 협력상대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미국 호감층은 83.6%가 미국을 꼽았고, 트럼프 호감층 역시 84%가 향후 협력상대로 미국을 선택했다. 중국을 택한 비율은 16%대로 격차가 매우 컸다. 반면, 미국에 비호감을 보인 응답층은 51.2%가 중국을 택했다. 이들은 유일하게 중국을 미국의 대체재로 본 응답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비호감층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33.7%에 그쳤다.

12.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7년 11월 14~16일). 미국,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한국의 협력상대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는 비호감(0~4점), 중립(5점), 호감(6~10점)으로 집단을 구분해 분석에 이용했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 중 '모름/무응답'은 결측치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의 경우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에 호감을 보인 응답층은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미국을 지목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중국에 호감을 보인 응답층에서는 한국의 협력상대로 중국을 택한 비율이 35.2%였고, 시진핑 주석에 호감을 보인 응답층은 31.5%가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더라도 전략적으로는 미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호감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호감층도 66.3%가 미국을 선택했다. 이는 미국 비호감층 중 51.2%가 중국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력상대를 고르는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에서 중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아니라 미국 호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요 협력상대를 생각할 때, 한국인은 대통령 개인과 국가를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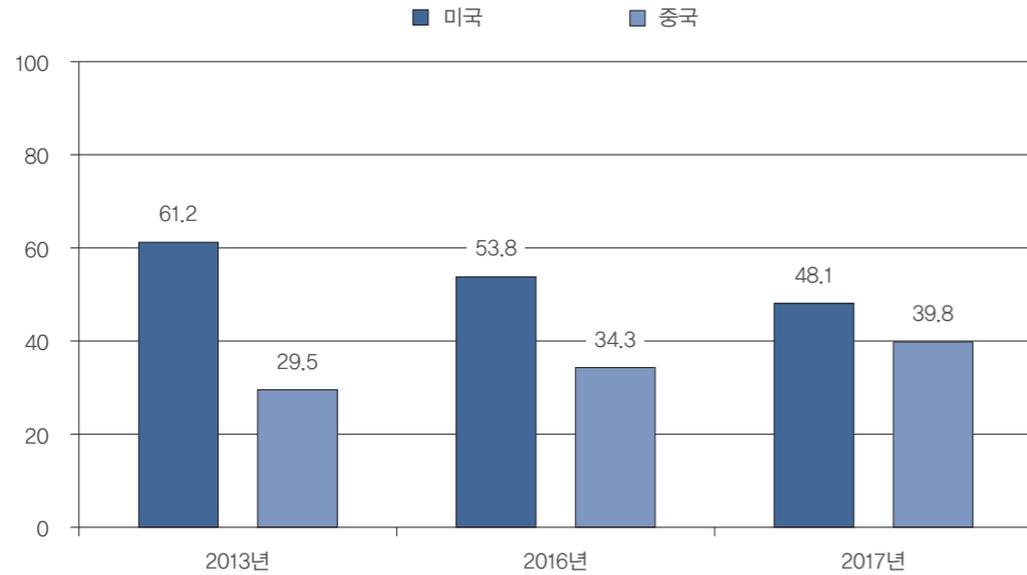
III.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1. 북핵 문제 협력상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높은 호감은 과거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 빈번하게 드러났다. 미국,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뿐 아니라 협력 상대 등 전략적 선택에서도 미국은 한국인에게 1순위 주변국으로 꼽혔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상대로 미국을 꼽은 비율은 꾸준한 하락세에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나라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가를 조사했다. 이 질문에 미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3년 61.2%에서 2016년 53.8%, 2017년 48.1%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한국인이 미국을 1순위 협력상대로 꼽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중요도는 4년 사이 약 13%p 줄었다. 반대로 중국을 택한 비율은 2013년 29.5%에서 2016년 34.3%, 2017년 39.8%로 4년 사이 10%p가량 늘었다. 미국, 중국을 제외한 응답이 5% 이하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2013년

[그림 5] 북핵 문제 해결 중요 국가¹³ (단위: %)



미국을 택했던 한국인들이 2017년 중국으로 선택을 바꾼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대북 제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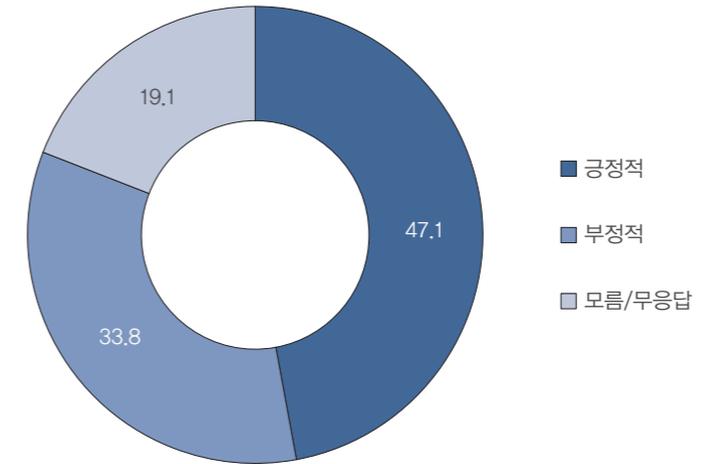
2.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더 그렇다.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와 경제 보복으로 인해 형성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47.1%의 한국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¹⁴을 밝혔음에도 나온 결과라 주목할만하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3.8%였고, 모름/무응답은 19.1%였다. ‘안보협력’, ‘군사동맹’ 등의 전문 용어가 응답자들

13.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3년 2월 13~15일, 2016년 9월 21~23일, 2017년 11월 14~16일).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를 지목한 비율은 매년 5% 이하였기 때문에 [그림 5]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14. 박경준. 2017. 文대통령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 수준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3/0200000000AKR20171103176100001.HTML>

[그림 6]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¹⁵ (단위: %)



에게 익숙하지 않아 의견 표명을 유보한 응답층이 비교적 많았다. 모름/무응답으로 의견 표명을 유보한 응답은 60세 이상 26.7%, 20대 24.9%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중 다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 발전’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대,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부정적 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60세 이상은 긍정적 의견이 53.9%, 부정적 의견이 19.4%였고, 20대는 긍정적 47.8%, 부정적 27.3%로 두 연령대 모두에서 긍정적 의견이 앞섰다. 이는 20대, 60세 이상의 안보 보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안보에 있어 보수 성향을 보였던 20대, 60세 이상이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30~50대는 긍정, 부정적 의견이 40~45% 사이에 분포하며 특정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다.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은 이념성향별로도 큰 차이가 났다. 보수, 중도는 긍정적 의견이 각각 56.1%, 50.9%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적이라고 한 응답은 보수 32.6%, 중도 28.6%에 그쳤다. 반대로 진보는 부정적 의견이 47%로 절반에 가까웠고, 긍정적 의견은 38.2%였다.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1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7년 11월 14~16일).

[표 6]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단위: %)

		긍정적	부정적	모름/무응답
전체		47.1	33.8	19.1
연령대	20대	47.8	27.3	24.9
	30대	42.9	44.0	13.1
	40대	45.1	42.0	12.9
	50대	43.6	40.2	16.2
	60세 이상	53.9	19.4	26.7
이념성향	진보	38.2	47.0	14.8
	중도	50.9	28.6	20.5
	보수	56.1	32.6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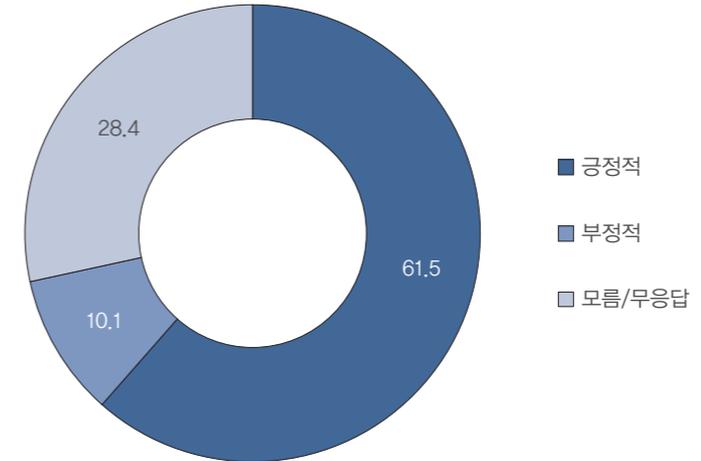
대해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진보 성향 응답자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중관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더 민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중협력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대북 공조와 압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관계가 최근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한중관계 개선에 공감했고, 특히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訪中)이 결정되면서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 11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61.5%의 한국인은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10.1%로 1/6 수준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비해 큰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10월 말 한중 합의로 관계개선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11월 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에서도 드러났다.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n=615)는

[그림 7] 2017년 11월 한중 정상회담 평가¹⁶ (단위: %)



30.6%가 사드 배치 갈등 일단락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는 한중 교류협력 복원 합의가 23.7%, 한중 정상간 신뢰 강화가 18.7%의 순이었다.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감은 한중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4.8%로 매우 높았다. 이는 앞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향후 한미관계를 낙관적으로 본 비율(69.8%)보다 5%p 가량 높은 수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과 같은 큰 외교 행사가 없었음에도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 준거점이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경색됐던 한중관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낙관적 전망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점에 대한 한국인의 실망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었음에도, 중국과 시진핑 주석 호감도가 이전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는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 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지, 그리고 이를 한국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16.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조사기간: 2017년 11월 14~16일).

나가며

한국인은 11월 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취임 후 최초로 시진핑 주석 호감도를 추월했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한에 대한 연이은 강성발언과 이른바 ‘코리아 패싱’, 한국을 우회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불식된 것이 호감도 상승에 일조했다.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으로 당시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이 관측은 1년 사이 낙관적 전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대미 인식 제고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의 상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40대 이하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응답층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대미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로 인한 스피로버(spillover) 효과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대북 정책에 따라 이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세밀한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로 주변국과 주변국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일부 제고됐지만,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인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됐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1순위 중요 협력 상대로 꼽혔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사이 중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중국과 시진핑 주석 호감도가 한중 양국 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트럼프 방한 이후 대미 인식 제고 효과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10월 말 한중 간 합의, 11월 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올해 초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

싼 갈등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한중관계는 양국의 관계 복원 움직임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사드 문제 완전 봉합 등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 중국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부록: 조사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SAN
REPORT

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발행일 2017년 12월

지은이 여론연구프로그램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90-4 93340 비매품



9 791155 701904 93340
비매품
ISBN 979-11-5570-190-4